



임주빈 모니카 | KBS 심의위원

##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일 년 365일 중에서 내 마음과 영혼, 몸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마음은 평화롭지만 몸이 아픈가 하면,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바람 심한 날 풍차마냥 돌아가는 통에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날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언제쯤이나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으려나, 그런 날이 오기는 하는 걸까,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미사 중에 문득 이 구절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아! 바로 이거야!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게 평화를 주셨건만, 제가 그 평화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미 평화는 내 안에 있건만 그런 줄 모르고 평화가 어디 있는지 사방을 헤맨 것입니다. 마치 마테를링크의 희곡 <파랑새>에서 주인공이 파랑새를 찾아 먼 길을 헤매듯이 말입니다. ‘평화’라는 것이 실체가 없고 개념 또한 저마다 다르니 자기가 현재 평화로운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 ‘평화’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의 기도문을 통해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롭기 위해서는 미움, 다툼, 분열이 없어야 하고 의혹과 그릇됨, 절망을 믿음과 진리, 희망으로 바꿔야 하며 어둠과 슬픔을 빛과 기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웃을 위로하고 이해하며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프란치스코 성인조차도 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을까요? 특히 용서와 일치하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SIGNIS)는 바티칸 교황청의 공인단체로 TV, 라디오, 영화, 인터넷, 미디어 교육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 세계 가톨릭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협회의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총회가 2021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서울 총회의 주제는 “Peace in the Digital World(디지털 세상에서의 평화).” 전 세계 300여 명의 시그니스 회원들이 참가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인으로서, 단체로서 주님이 주신 평화를 구현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늘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나름의 해결방안을 얻어 우리 모두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네가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라  
네가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라  
네가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라  
네가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라

2020. 1. 22



허정희 데레사 | 청주교구 서청주성당